

濟州道民日報社

社說

섬세한 정신을 되찾자

1990년 1학기를 맞으며

山野에 눈이 겹치고 맑은 햇살이 비치는 새봄이다. 머지않아 봄의 대지에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날 것이다. 생명이 사라진 듯한 대지에 다시 생명이 회귀한다. 겨울의 황량함이 있었기에 봄의 생명력은 더욱 새롭고 보이고, 죽음과 부정이 생명과 창조를 모태임을 보여준다.

새봄을 시작하는 대학교 봄의 대지와같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야 되겠다. 대지가 쉼과 無의 겨울을 견디고 봄에 새로운 싹을 피우듯이, 대학교의 휴학과 겨울을 넘어서서 새로운 지식의 나무를 키워내야 되겠다. 대지가 건강한 삶을 지켜주듯이, 대학교도 풍요로운 지식의 나무를 키워 그 결실로 건강한 지식인을 길러내야 되겠다.

그것을 위한 준비는 무엇보다도 대학인의 정신의 가다듬이다. 대학은 휴의 대지가 아니라 정신의 대지이기에 그 정신이 풍요로워야 한다. 그 정신이 메마른 불모지라면,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다. 그 정신이 경직되고 편협하다면 그곳에서는 왜소한 병든 나무만 자랄 뿐이다.

대학은 너무나 오랫동안 경직된 구조와 이념에 의해 지배되어왔다. 현실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아니라 주와 주장만이 대학에 법랍해왔다. 그결과 한쪽에서는 정치 이데올로기의 기치를 높이 쳐들고 정치현실의 변화를 지향하는 현실참여적 정신이 어우러지면서 또 한쪽에서는 현실참여에 등을 돌린 채 무사안일과 자신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정신이 있었다. 한쪽에서는 집단주의의 경직된 구조가, 또 한쪽에서는 개인주의적 자기중심적 성향이 대학인의 정신을 마비시켜왔다. 극단적이고 순교적이고 心情主義의 희생이 있는 반면에 물질적이고 反心情主義의 이기주의가 있었다. 낮은 지식에 의한 경직된 권위주의와 허위주의가 있었지만 한편 반권위주의와 순정주의의 민중의식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학의 정신은 이분화되고 그 분열의 끝은 점점 깊어지면서 다양하고 풍요로워야 할 대학의 정신은 경직되고 메말라졌다.

이제 새봄과 함께 훌륭한 지식의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정신의 대지를 맑고 순수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가다듬어야 되겠다. 망각과 허위가 아니라 순정한 정신, 경직과 권위가 아니라 부드러운 포용적 정신, 안이와 타성이 아니라 새로운 의욕에 가득찬 정신, 물질적 욕심과 만족이 아니라, 더 높은 이상주의적 정신이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정신들이 대학이라는 대지에 새로운 생명을 귀시킬 것이다.

섬세한 정신으로 대학은 항상 깨어 있고 의욕에 차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 진리의 영역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자족하고 안이해진다면 진리로서의 값있는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우리는 아직 자유와 기쁨, 평화와 행복이 깃든 유토피아에 도달하지 못했다. 우리를 자신도, 우리가 가진 지식들도 우리의 이데올로기들도 완전하지 않다. 우리의 지식들은 과도기적이고 진리로 들어가고자 하는 문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진리로, 유토피아로 가는 도중에 있을 뿐이다. 그래서 대학은 부단히 그 스스로의 정신을 비판하고 새로운 정신으로 태어나야 한다. 대학인은 구태의연한 경직된 사고로부터 벗어나 창조적인 섬세한 정신을 회복하여야 한다. 허위와 경직과 망각이 아닌 섬세한 정신을 우리는 생활에서나 학문에서나 정치에서 되찾아야 한다. 섬세한 정신만이 우리를 진리에도, 유토피아에도 끊임없이 다가가게 하고, 더 나은 미래사회를 이끌 새로운 지식과 이념을 창출한다. 왜냐하면 섬세한 정신만이 현실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고, 그것을 내면화해서 경직되거나 허구화되지 않는 새로운 사상과 이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대학에서 대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신입생과 새학기를 시작하는 재학생의 우리 대학인 모두가 봄의 부드러운 대기와 같은 섬세한 정신을 지닐때, 대학이라는 대지로부터 온갖 아름다운 지식의 나무들이 자라날 것이다.

파고라

「뭘든 할수있다」는
진취적 사고를 갖자

개학과 함께 '90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거행되면서 겨우내 한산했던 아라뱃이 활기를 되찾았다.

이제는 치열했던 입시전쟁도 지루한 방학도 끝났다. 정제된 마음을 열고 열린 세계로의 힘찬 도약을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특히, 올해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뜻깊은 시작의 한해이기 때문에 대학문에 들어선 1천 8백 40명의 신입생들은 환상적인 대학동경보다는 주어진 자기생활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지난 80년대는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피의 절규로 시작돼 6공화국 공안정국에 이르기까지 험악한 자의 지배논리가 점철된 10년이었다. 그속에서 수많은 애국인사·학생들이 구속됐고, 노동자의 임금상승투쟁, 교사들의 참교육 함성은 찬바람 새겨 패아 했다.

「첫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다」는 말이 있다. 삶이기에 있어 시작의 중요성을 일컫는 말이다.

이제 대학인이 된 1천 8백 40명의 신입생들은 자신의 과거를 반성·정리하고 현재의 나를 정립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변화의 시간을 가져볼때 좋을 듯 하다.

사람을 바라봄에 있어 객관적·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기중심주의에서 탈피한 易地思之의 태도, 자기의 현위치에 대한 인식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관 정립이 있어야 삶의 범주와 객관적 시각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우리가 대학에 들어온 것은 추억을 만든다거나 낭만을 즐기려함이 아닌 만큼 진리탐구와 인격도야를 비롯한 자기인간에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평범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대학일우에 편개쳐진 모습을 보고 적잖은 절망과 회의를 맛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가 결코 퇴보를 향한 내리막길이 돼서는 안된다.

대학생활의 성패는 모든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해도 안된다」는 생각보다는 「하면 못

할 것이 없다」는 진취적 사고가 기본적인 대학인의 자세라 생각된다.

자신의 타의든 여러분에게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그속에서 이제는 자기의 진실된 생활을 꾸려내야 한다. 그러려면 뚜렷한 목표야래 정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학은 탐상을 차려줄 수는 있어도 밥을 먹여 주지는 않는다. 스스로 해야한다. 고등학교 교까지의 보호적 특권에서 벗어나 이제는 존사회인으로서의 자질과 지성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때다.

다사다난했던 80년대는 역사속의 한페이지로 남을 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번다시 시작이 그릇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끝으로, 1천 8백 40명의 신입생들에게 당부하고픈 말이 있다. 그것은 매사에 신중과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멋없이 보낸 세월은 그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는다. 지금 시작하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龍】

기나긴 겨울방학이 끝나가고 신학기의 개강을 앞두고 있다. 겨우내 조용하던 대학캠퍼스와 정적만이 자리 하던 강의실에 봄과 함께 활기가 되살아 나갔다. 그리고 마이크소리가 웅변과 패스를 울리며, 본관 앞 광장이 연일 행사로 부산스러워 지리라고 예상된다. 대학의 진면목인 연구와 면학의 열기로 가득 찬 분위기가 하루 빨리 확립되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우리를 둘러싼 시대적 상황이 이를 쉽게 허락하여 줄 것 같지가 않다. 정치·경제·사회를 어느 한 면도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전망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전념해야 할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차기집권욕에 빠 차 있어서 과연 투노활동의 몇몇을 국민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하고 의심이 간다.

지금까지 쓴 인건비로 노동 집약적인 기업으로 수입을 올렸던 기업들이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분규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한 기술의 벽에 부딪혀 외국상품과의 경쟁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사회는 이와 맞물려 과거에 역압받

1990學年度 入學式 式辭

眞理探究의 즐거움을 찾아나서길

親愛하는 新入生 여러분! 여러분의 入學을 금지하는 國立濟州大學校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入學을 축하하고 충심으로 환영하는 것은 無限한 可能性을 지닌 젊고 발랄한 여러분을 맞이함이 다시 한번 이 大學校의 현실을 가다듬고 미래에 대한 발전구상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親愛하는 濟州大學校의 新入生 여러분! 大學教育이란 名分은 完成教育이니, 大學課程을 이수하면 일단은 사회인으로서는 필요한 敎養과 專攻分野의 知識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敎育에 完成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大學敎育은 在學中에 敎育을 完成시켜주는 데 있는게 아니라 大學課程을 이수한 후에도 계속 연구의욕을 굳게 가져서 스스로 학문적 능력을 키워나가는 한편, 좁은 전문영역에 머무르지 말고 다른 領域의 學問도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敎育이어야 하고, 언제까지나 젊은 氣概로 뻗어나갈 수 있는 彈力性있는 敎育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人材를 濟州大學校에서 배출할 수 있는가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를 모두의 努力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敎授님들의 努力에 의할뿐 아니라 오히려 敎育받는 學生들의 姿勢와 精神에 의해서 그 成果가 左右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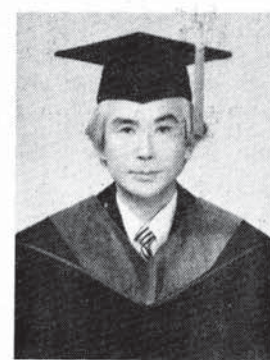
여러분이 20세 전후의 귀중한 나이에 在學하게 될 4년간, 그 기간에 일어날 國內外의 政세를 예견해 보면서 어떠한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信念을 가지고 올바른 姿勢와 굳은 精神, 그리고 眞理를 숭상하고 眞理를 추구하는 人들만이 앞으로의 난국을 극복하고 民族과 人類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예지와 능력을 갖추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있는 예지와 능력을 갖추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大學의 學問의 風土는 大學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大學은 우리들의 精誠으로 研究와 敎育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시켜 나가야 합니다. 오직 學生여러분의 理性和良識을 믿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大學風土를 바람직스럽게 進展示켜 나가십시다.

大學에서 自律이 존중되는 것은 그것이 大學敎育에서 最善의 方法이기 때문입니다. 自律이 大學本然의 기능이고 임무인 研究와 敎育을 저해하는 결과와 와서는 결코 안될 것이며, 그것은 大學의 公信用을 떨어뜨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目的도 수단도 미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바른 目的은 올바른 수단에 의해서만 달성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濟州大學校의 여러 규정을 지키고 自律로서 본분을 다하는 한편 대학질서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社會에 대하여 大學의 권위를 높이는데 같이 協力하여야 합니다.

大學은 研究活動으로 새로운 知識을 創造하고 그 知識을 學生들에게 전수하여 社會에 有爲한人材를 輩出하고 研究를 위하여나갈 후계자를 키워 나가는 곳입니다.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機關인 濟州大學校는 綜合大學校입니다. 綜合大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같은 學問領域중 어느 한分野를 選擇하였지만, 人間으로서의 共通된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확신한 그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삶의 의미, 人間의 존엄성, 이와 관련된 삶에 따르는 여러문제, 正義와眞理의 追求등이 그것인 것입니다. 社會



總長 金 滢 玉

가 發展하고 生活水準이 향상됨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人間의 幸福과不幸에 대한 判斷基準도 지금 말한 人間의 基本問題에 관련시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社會에 나가서 일에 쫓기다 보면 그러한 문제를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적어집니다. 在學時節은 그러한 問題를 생각하는데는 매우 좋은 期間이고 알맞은 環境임을 명심하여 주기 바랍니다. 더불어 友情을 나눌 學友들이 있으며 指導를 바랄수 있는 先輩도 있습니다.

平生敎育이 최근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은 사람에 따라다릅니다. 一生동안 필요에 따라 一定期間 再敎育을 되풀이 받아야 한다는 관점과 平生工夫를 스스로 계속해야 된다는 관점이 그것입니다. 그런 관점들이야 어떻든 大學이 거기에 이바지해야 할 일도 생각되어야 하겠지만, 오늘날의 大學 그리고 大學制度는 20세 전후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해서 敎育과 研究를 연결시키는 最高敎育機關으로서의 機能을 앞으로 다하여 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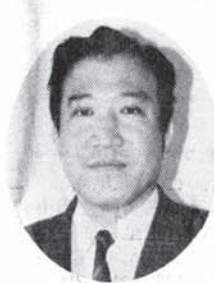
大學의 創造의 知的 活動을 보장하기 위해서 大學은 自律의이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豫算과 定員 등 大學 自律에서 決定할 수 없는 일들로 해서 制限을 받기는 하나 大學이 自律의으로 運營되어야 된다는 것은 當然한 일로 이미 學内外에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自律이 보장되는 만큼 大學人들 스스로의 책임도 무거워지는 것이고, 社會로 부터의 期待에 부응하기 위한 자각과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大學運營이 自律이어야 하고 研究의 自由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모든 行動이 自由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學内の 研究와 敎育環境을 깨끗하게 그 活動을 저해해서는 안되며 自身의 主眼點을 내세워서 社會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學內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親愛하는 新入生 여러분! 여러분이 大學在學 中에 眞理의 權威, 眞理探究의 즐거움을, 그 실마리를 찾아서 이 대학의 교수님들은 노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新入生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고 여러분에게 거는 주위로 부터의 기대, 그리고 父母님들의 아낌없는 헌신을 생각하여, 결코 감정에 사로잡혀 情慾함이 없도록 自重·自愛·自制하면서 信念과 希望으로 濟州大學校에서의 學窓生活를 값지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無論有說

學生運動과 우리들의 姿勢

「일어설때와 앉을때」를 냉철히 구별토록



尹 彰 焄

언 여러가지의 욕구가 민주주의의 바람을 타고 일시에 분출되어 혼돈과 무질서를 초래하고 있다. 또 폭력과 강도와 같은 비합이 난무하며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는데도 당국에서는 구조만이 겹쳐지고, 끊임없이 발생하여 시민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시대상황속에서 自意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주장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구나 뜨거운 젊음과 순수한 이상을 지닌 청년들이 비리와 모순을 보고, 불만을 분출해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5기後半에서부터 학생운동의 양상은 과거처럼 거역받

고, 성격은 반독재·민주화에서 통일이라는 한민족의 대과제인 이념쪽으로 바꾸어져 갔다. 우리대학에서도 학내민주화를 목표로 많은 학생들이 농성하는 사태가 생겼고, 이에따른 징계로써 「제적」이라는 곤욕을 치른 학생도 있었다. 학생들의 징계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관계자들을 곤혹시키는 일이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日本에서 私立大學으로 유명한 同志社大學에서 학생스트라이크 일어났는데, 이大學의 창설자이며 총장인 新島襄氏が 「책임자를 벌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잘못이니는 뽀나뽀나피기로 자기의 원수를 내리쳐서, 지팡이가 돌로 쪼개졌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이것으로 스트라이크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총장이 지팡이를 학대했다는 것이 주는 의미는 컸을 것이다. 이는 학생소요에 대해서 통렬히 그 책임을 느끼며, 아울러 교육자로서의 인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이란, 아무라도 흉내 낼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이 新島襄氏가 남긴 10個條의 遺訓이라는 것이 있는데, 第三條에 「교직인인 사람은 학

생을 정중하게 취급할 것」이어서 第四條에는 「同志社에서 個體不肅(척장불기: 기개가 없고 뜻이 커서 남에게 놀려지 내지 않는다는 뜻) 한 학생을 억누르지 말고, 基本性에 따라서 愛惜 順導하여, 天下의 人들로 양성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오늘날의 감각에서 보면 out-of-date 한 말이라고 생각될런지 모르나, 인간의 본성을 존중해서, 인간의 素材를 충분히 개발시켜야 된다는 新島氏의 敎育觀을 읽을 수 있다. 교육의 목표가人材의 양성에 있을진대, 일시 그릇된 판단으로 과오를 저질렀다고 해서 자라나는 싹을 잘라버리는 것보다 훌륭한 材木이 되도록 키워 나가는 것이 몇갑절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서 학생제군들에게 관용이라는 겹겹 속에 들어 앉아서 사려분별이 이 과오를 저질러도 좋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일어날때와 앉을때를 냉철한 판단으로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이며, 마음만 뜨겁다고 부화뇌동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인간이란 정말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 시간적으로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약70년 내지는 80년이라고 하지만, 짧은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짧은 시간을 여하히 보람있게 살아야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태어난 존재의 가치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바로 그것이다. 각자의 삶에 대한 지혜가 결국 이를 결정할 것이다. 우리가 막연히 지혜라고 흔히 말하지만, 지혜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바른 생활태도, 바른 몸가짐, 바른 言行을 지속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인생이 짧은 것인데, 대학 4년간은 인생의 몇십분의 일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이다. 이기간에 어떠한 시대상황을 잘 통찰하고 분석하여서 「決擇」(결정하고 선택한다는 뜻) 할 수 있는 「지혜」를 꼭 터득하기를 바란다.

식품영양학과 副敎授

원고를 모읍니다.

학교행정에 있어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나 대학 발전에 대한 조언, 학문의 새로운 동향에 관한 글들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濟大新聞社

4막의 연극, 라스트썸도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대학 4년의 막이 올랐습니다.

탁수영 거뭇한 신입생의 눈망울은 누구나

부르로 반짝입니다.

하지만 달이 가고 해가 바뀌면 캠퍼스 무대에 선 대학인의 모습은 차츰 변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대학생은 1학년엔 獅子이지만 2학년엔 思子가 되고 3학년엔 斜子로 그리고 4학년이면 아예 死子가 된다고.

어쩌면 끝내는 관객으로, 대학생들의 이웃사이로 소극적인 대학생활에 만족하고 말지도 모릅니다.

가득한 꿈으로 대학의 빛장을 여는 여러분.

부디 하늘은 저를듯한 그 포부 늘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크게 키워 나가십시오.

들립니까? 4막 연극의 막이 내릴 때 들려올

관객들의 박수소리가

●포항제철은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기의 변명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

요즘은 평생교육이란 말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배움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를 나와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교육은 평생교육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이 젊어야 할 인생의 황금기인 청년시절에 해당되고 자기 미래를 위한 전진성을 결고서 그 기초를 닦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학생의 경우 대학이 자신의 학창시절에서 마지막 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좁은 지평을 열어놓아서나 어떤 자로서 학문에 접하며 인격을 도야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평소 생각하고 있던 점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학문연구에 몰두하라.

오늘날 대학이 대중화되어 그 기호가 널리 확대되고 있지만 대학은 그 발상부터가 전문직을 가진 지도자의 양성에 큰 목표를 두고 있다. 전문직을 가진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강한 학구열, 지식욕이 있어야 하겠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대학생들은 아예 출발 할 필요도, 의미도 없다.

산업사회의 발달로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장차 21세기를 맞이하고 나갈 오늘날의 대학생으로서의 이상은 충분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혼자만의 안락도 편한것이 아니라 강한 학구열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이 그렇게 해버린다면 국가의 사활은,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고 매일 학문연구만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진없이 학문에 몰두하되 주말이면 머리도 단정히, 옷차림도 말끔하게

학문에 접하는 대학생의 자세

“강렬한學究·知識慾을 갖자”

뚜렷한 「로고스」가 없다면 대학다닐필요없어

대학교수는 단지 학문의 길잡이 일뿐

학여 학문 이외의 일에 빠져드는 것이다. 놀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 「Work hard En joy hard」라는 옥스포드대학생들의 구호가 우리 대학에도 힘차게 메아리쳤으면 좋겠다.

둘째: 세계적인 안목을 넓혀라.

이 세계는 지구촌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좁다. 우리들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세계를 상대로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80년대에 들어서 급속하게 진행되어 『이제는 더 이상 언제까지나 우물 안 개구리노릇을 할 때가 아니다』 대학 그 자체부터가 학문을 토대로 크게 몸부림쳐야 할 때다.

세계적인 안목을 갖는 표적이 되는 것은 결국 어느 정도에 이르러서야 할까? 아느냐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학문은 학문대로, 국어는 국어로, 외국어는 외국어로, 외국어특강들이 있으니 생각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한가지 참고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졸업후 외국어실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뒤떨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볼때 같은 대학인으로서 뼈를 깎는 아픔을 겪을 때가 한두번이 아님을 밝혀두고 싶다.

셋째: 멋있으면서도 바보스러워라.

멋있는 것만 추구하는 것은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나가고 학문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어능력은 다른분야와 달리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 그 자체부터가 학문을 토대로 크게 몸부림쳐야 할 때다」라는 말을 되새기며 학문을 토대로 크게 몸부림쳐야 할 때다.

세계적인 안목을 갖는 표적이 되는 것은 결국 어느 정도에 이르러서야 할까? 아느냐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학문은 학문대로, 국어는 국어로, 외국어는 외국어로, 외국어특강들이 있으니 생각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한가지 참고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졸업후 외국어실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뒤떨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볼때 같은 대학인으로서 뼈를 깎는 아픔을 겪을 때가 한두번이 아님을 밝혀두고 싶다.

셋째: 멋있으면서도 바보스러워라.

멋있는 것만 추구하는 것은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나가고 학문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어능력은 다른분야와 달리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 그 자체부터가 학문을 토대로 크게 몸부림쳐야 할 때다」라는 말을 되새기며 학문을 토대로 크게 몸부림쳐야 할 때다.

상당수준 구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 오늘날 영어는 외국어라는 개념보다는 학문으로서의 입장에서 세계어로서의 중심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영역에 그치지 취미가 없는 경우라면 우리나라와 인접한 나라말인 일본어·중국어 또는 불어·독어 등 어느 하나를 특출하게 익혀 배우는 것도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나가고 학문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어능력은 다른분야와 달리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 그 자체부터가 학문을 토대로 크게 몸부림쳐야 할 때다」라는 말을 되새기며 학문을 토대로 크게 몸부림쳐야 할 때다.

세계적인 안목을 갖는 표적이 되는 것은 결국 어느 정도에 이르러서야 할까? 아느냐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학문은 학문대로, 국어는 국어로, 외국어는 외국어로, 외국어특강들이 있으니 생각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한가지 참고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졸업후 외국어실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뒤떨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볼때 같은 대학인으로서 뼈를 깎는 아픔을 겪을 때가 한두번이 아님을 밝혀두고 싶다.

셋째: 멋있으면서도 바보스러워라.

멋있는 것만 추구하는 것은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나가고 학문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어능력은 다른분야와 달리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 그 자체부터가 학문을 토대로 크게 몸부림쳐야 할 때다」라는 말을 되새기며 학문을 토대로 크게 몸부림쳐야 할 때다.

지 기회가 있다. 한가지 참고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졸업후 외국어실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뒤떨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볼때 같은 대학인으로서 뼈를 깎는 아픔을 겪을 때가 한두번이 아님을 밝혀두고 싶다.

셋째: 멋있으면서도 바보스러워라.

멋있는 것만 추구하는 것은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나가고 학문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어능력은 다른분야와 달리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 그 자체부터가 학문을 토대로 크게 몸부림쳐야 할 때다」라는 말을 되새기며 학문을 토대로 크게 몸부림쳐야 할 때다.

세계적인 안목을 갖는 표적이 되는 것은 결국 어느 정도에 이르러서야 할까? 아느냐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학문은 학문대로, 국어는 국어로, 외국어는 외국어로, 외국어특강들이 있으니 생각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한가지 참고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졸업후 외국어실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뒤떨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볼때 같은 대학인으로서 뼈를 깎는 아픔을 겪을 때가 한두번이 아님을 밝혀두고 싶다.

셋째: 멋있으면서도 바보스러워라.

멋있는 것만 추구하는 것은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나가고 학문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어능력은 다른분야와 달리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 그 자체부터가 학문을 토대로 크게 몸부림쳐야 할 때다」라는 말을 되새기며 학문을 토대로 크게 몸부림쳐야 할 때다.

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멋이란 각자의 인품에서 우러나오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뜻한다. 개성이 뚜렷하다고 해서 멋쟁이가 아니라 대학생으로서의 자존심과 품위를 지키면서 장차 지도자적인 소양이 깃들여 있는 분위기가 흠뻑 풍겨 배여 있어야 진짜 멋쟁이다.

지도자의 필수요건은 높은 교양이다. 교양은 너와 나의 만남의 기본이요, 서로가 지켜야 할 공약수이다. 교양이 없으면 사회가 혼란해지고 사회생활의 지도자적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엔 바보스러울 정도로 사색하고 고민하고 교양을 익히는 과정이 있어야만 언뜻 언뜻 찬란한 빛을 발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대학시절 바보스럽게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학문에 정진하고 교양을 익히며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순간순간 편하게 지내며 멋있고 풍성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

넷째: 독자적인 사고능력을 키워라.

그렇다고 동경하던 대학에 입학하면 대학생활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강의종과 시간표 등이 알려지고 나면 별다른 안내 없이 방치되므로 모두들 어리둥절하게 된다.

대학당국도 교수도 무성의한



高 有 峰
해양과학대 教授

것같이 보인다. 그래서 때로는 고등학교처럼 매일 만날 수 없고 제각기 바쁘게 움직이다보면 교수가 마치 권위만 내세우고 학생들을 돌보지 않는 것으로 오해되기 쉽다.

독일의 게오르크 짐멜은 「교

육의 본질은 전통의 구속과 전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조화시키는 데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고등학교까지는 전통의 구속에서 지중해왔기 때문에 전통으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하는 대학에 발을 들여 놓으면 당할 수 밖에 없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등학교까지는 「하지말라, 하면 안된다」라는 소극적인 측면이 주가 되지만 대학에서는 「무엇을 하라,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적극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독자적 사고능력배양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 능력은 남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하되 언제나 자기 안경을 통해 單色眼에 걸리지 않고 편견에서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는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길러진다.

대학의 교수는 학문의 길잡이는 되지만 방대한 학문전체를 교습시켜줄 수 없으므로 학생각자가 이 독자적 사고력을 키움에 의하여 강의시간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학문세계를 넓힐 수 밖에 없다.

다섯째: 학과에 대한 애착심을 가져라.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들은 대부분 50년대를 전후하여 여러 운 시기에 세워져 60년대 삶의 질박한 생활을 넘기면서 70년대에 겨우 학문하는 풍토가 정착되었고 80년대에는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대학의 양적팽창과 더불어 세계를 향한 나라를 퍼왔지만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아직도 세태의류에 달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거기에다가 학풍변수의 추, 감각적패주의, 출세지향주의적

인 탁하고도 답답한 공기가 만연하다보니 학과선택이 학문자체에 대한 진솔한 평가와 자신의 적성 및 사명의식과는 동떨어져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어도 자연히 학과에 대한 애착과 학문에 대한 열의가 불붙어보기도 전에 식어버리게 되어 불만이 잉태되고 이것은 다시 다른 방향으로 표출되게 된다.

어떻게 하느냐 해답이 된 학과라하더라도 일단 들어왔으면 적극적으로 흥미를 붙이고 스스로 노력하여 그 학과를 토대로 대학생으로서의 가치를 추구하고 학문에 대한 사명의식을 높여 하나의 인격체를 형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뜻에서 나는 「대학을 큰그릇(大器)을 만드는 곳이라고 부르고 싶다. 대학졸업후 어떤 분야에 접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아무리 물을 그릇에 부어놓아도 그것이 워낙 커서 아직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대학시절에 키워야 하겠다. 이 능력은 평소 학문하는 자세와 충만한 교양을 통해 키워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학문을 닦고 인격을 도야하는 것도 종국에 가서 질서와 조화가 있는 복지사회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록 우리는 분단국가로서의 분노와 울분을 안고 있고 부존자원의 적은 조그만 국가이지만, 여러분과 같은 명쾌한 두뇌와 교양을 갖춘 젊은 인적자원이 있기에 마음둔다. 이러한 모든것은 건전한 심신단련과 학문탐구에서 비롯되므로 두 2천년대의 기수가 될 초석이 되도록 단단히 닦아주기 바란다.

대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여년전 어떤 中·高 전교생 앞에서 수재가 되는 백발백중의 秘法을 공개하겠다고 큰소리쳤다. 명문고과 모두가 수재임을 자칭하고 있는 수천명의 학생들에게 「수학 「머리」가 좋아지고 싶어요. 어학 「머리」가 좋아지고 싶어요? 별것 없어요. 간단하고 쉽. 수학의 생명을 또 영어선생님을 좋아하든 되는거요? 했더니 모두 웃었다. 그것은 아무래도 학교를 사랑하고 선생을 존경할 줄 아는 학생이요. 하고 고집스럽게 「탐」 했더니 이번엔 웃지도 않았다. 좀 생각해볼만 했던 것일까.

‘88학년도를 미국에서 보냈다. 그곳에서 지내면서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한 일 중의 하나가, 미국대학생들은 자기학과를 「一流」라는 생각을 떠나서 생각하는 법이 없다는 점이었다. 당시 재직했던 학교 학생들이 「그때 대학교가 적었는데도—S.Y.K 대학한테 주눅이 든 「流」—콜롬버스에 걸려 있어 가슴이 파터던 터라 몇류냐는 물음을 자주 던져 보았다. 대답은 한결같이 「流(완·오브·더·베스트)」라는 것이다. 단 제한이 가 무따르지 했다. 「팬저」대생들은 中西部(인·미드웨스트), 텍사스의 이름없는 대학에서 카고에 온 녀석은 텍사스일류라는 것이었다. 시카고대학 학생들은 좀더 심한 것 같았다. 좀 버드나 예일—그런 경우나 좀 클 뿐이라는 것이다. 당시 뉴욕대학은 학생수 10만이었는데

시카고는 학부 1천5백, 대학원 4천5백 모두 합해서 6천명 정도였다. 그런데 수학과 박사과정에 있던 한교수가 자기과는 세계제일이라는 것이었다. 하도 어이가 없어 「그래 캠퍼스 리지보다 낫단말이야」 했다. 꼬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아마 「6·25로 겨우 이름이나 알려

진 코리야에서 온 이 무식쟁이가 하고 생각하는 「캠퍼스리지」 그런 뉴문시대 이야기.」하고 쓰아내는 것이었다. 꼬마한테 당한 분풀이었을까. 다음해 귀국해서 「야 이 녀석들아, 우리 학교는 서울하고도 동대문구에서 「流」 아니냐?」

愛嬌, 愛校, 愛國하는 「心情」은 자연스레, 그러니까 敎育만 지 않고도 우러나는 것일 터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다. 애초 고쳐야 한다. 크나큰 病患이기 때문이다. 自虐症이다. 이 병에 환자 자신만의 의사 없다. 미국이나 소련, 영국이나 독일, 심지어는 중국같은 大國에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

특별기획

대학이란 과연 어떤 곳인가 그리고 대학 4년을 어떻게 보내야 바람직한 것일까. 「생활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물론 바람직한 이

학적은 自意에 의해 「企投」 된것

이제는 삶든 좋든 이 대학을 아끼고 사랑해야

「教育」, 師弟間이 敬과 愛로 맺어져야

진 코리야에서 온 이 무식쟁이가 하고 생각하는 「캠퍼스리지」 그런 뉴문시대 이야기.」하고 쓰아내는 것이었다. 꼬마한테 당한 분풀이었을까. 다음해 귀국해서 「야 이 녀석들아, 우리 학교는 서울하고도 동대문구에서 「流」 아니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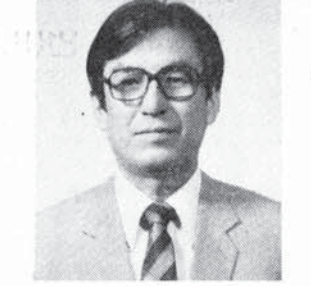
愛嬌, 愛校, 愛國하는 「心情」은 자연스레, 그러니까 敎育만 지 않고도 우러나는 것일 터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다. 애초 고쳐야 한다. 크나큰 病患이기 때문이다. 自虐症이다. 이 병에 환자 자신만의 의사 없다. 미국이나 소련, 영국이나 독일, 심지어는 중국같은 大國에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

인하는 딱한 인생도 있기는 하다. 국적이란 우리가 그 속에 「被投」되어진 것, 우리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것이지만,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學籍은 우리 자신이 분수에 맞는다고 보아 자의에 의해 「企

우리 대학생들이 교수를 존경한다는 일은 좀 어렵게 되어 있다. 金權이나 政治權力같은 물리적 힘이나 설치는 판교에 敎權이나 人格, 學德같은 것이 힘 될 수 없다. 人格—교수라고 해서 유달리 고결한 인격

않은지 자기들과 같이 걸음엔 7尺인가 떨어져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되풀이했다. 그랬는데 지금은 스승의 그림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스승의 머리를 껴대 들어 준 事例는 있다. 양반 충충도 大田

라 그 효율이 크게 달라진다. 여기서 속스런 얘기 한 토막을 하려고 한다. 바로 며칠전, 개학이 가까웠다고 옛날 제자들을 호소했다. 반가웠다. 미웠던 6·25후 단란적이 없는 제자가 많이 있었다. 반가웠다. 미웠던 이 큰 키에 병약하고 집은 가난했던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이 생생했다. 가정방문을 가도 불한찬 못되어왔다. 한때 이 친구, 자기는 「仁川에서 상당한 財力家인데 그제 모두 내 대이」라는 것이다. 6·25때 포병장



朴 慶 華
인문대학 전임강사

교로 크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내 「數學」때 문이었고 故群한 포병장교였던 인연으로 어쩌구 저쩌구해서 부자가 됐다는 것이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내 얼굴을 봤다. 나도 박수를 쳤다. 탐욕으로, 지급도 호호했다. 그래서, 20년후

신물질·신소재·신자원을 창조하는—럭키

人間·技術·未來
럭키금성

기초원료, 생활·산업자재에서 첨단미래산업까지 —
럭키가 펼쳐가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창조정신으로
필요로운 미래를 앞당기는 럭키 —
우라나 화학공업을 선도하며, 끝없는 도전과 창조정신을 통해 「세계 속의 종합화학회사」로 성장한 럭키 —
럭키는 기초원료, 생활·산업자재는 물론 무공해능약, 동물상장구전제, 인타메론, 부작용 없는 제3세대 항생제개발 등 첨단산업에 있어서도 고도의 기술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신물질, 신소재, 신자원의 창조로 풍요한 미래생활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럭키는 사업분야를 「생활·산업부문」, 「화학부문」으로 2원화, 기업경영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IDEAL21세기」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생활·산업부문
1947년 창업 이래 「신뢰할 수 있는 럭키」의 이미지로 국내외화공업을 선도해온 럭키는 럭키자약을 비롯한 각종 생활용품과 화장품, 건축 및 산업자재는 물론 고부가가치의 정밀화학제품, 유전공학에 이용한 의약품 등 첨단제품 또한 꾸준히 연구개발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화학부문
합성수지 기초원료와 고도의 석유화학원료를 생산함으로써 국내외화공업을 선도하는 물론 연자아령 프라스틱 등의 신소재를 개발해온 럭키는 첨단설비를 갖춘 여천석유화학단지과 나주공장의 네트워크체제를 통해 국내외화공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 집

신입생을 위한 紙上案内

캠퍼스 이모저모

아라별은 빗방울로 시작된다

「지성의 터전 아라별은 이제부터 그대들의 고향이다.」 그러나 그대들은 입학의 기쁨을 채 느끼기도 전에 오리무중인 캠퍼스의 지리와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당혹감으로 큰 고충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결코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그대들의 앞날은 아직 창창하지 않은가. 그대들이 목적을 갖고 이곳에 들어온 이상 그 무엇이든 정취해라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본교의 지리를 빨리 터득하는 것은, 캠퍼스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이리의 보물을 찾아내야 한다.

아라별 어느 곳 보다 웅장한 바닷물이 불어 일렁 「폭풍의 언덕」이라 불리우는 인문대 학 뒤쪽에는 신전으로 이어진 호젓한 오솔길을 비롯, 어느 타 단대보다 도서관도 빨리 걸 수 있는 직행길이 앞길로 뻗어 있다. 특히 밤이면 은은히 부서지는 가로등 불빛과 졸졸 소리도 무르익는 이곳 분위기에는 몇몇 아라별들의 속을 태우기에 충분하다. 그 경치가 오히려 아름답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 이곳에서는 이성의 1대 1 만남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냉정한 조언이 있다.

인문대에서 내려와 화성화관 왼쪽에 있는 4층 건물 앞을 보면 파고라가 있다. 이는, 아라별의 휴식공간으로서만 아니라 학우들의 친목도모장소로도 이용해 아라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그곳에서 남쪽으로 올라가 보면 참고교 교사를 배출하는 사범대 강의동이 보이고, 그 뒤쪽에 「사목동산」이 있다. 이곳에서는 볼레나루와 밤나무들이 뿔뿔히 들어차 있어, 학우들이 때를지어 마음놓고 허가된 서리를 즐길 수 있고, 나른한 봄날이면 낮잠을 즐길 수도 있다.

마도스의 꿈을 키우는 해대 건물들 따라 내려가다, 오른쪽 모퉁이를 돌면 자연과 화해와 공과대 건물이 보인다. 그 너머로 조그마한 계곡이 있는데, 그곳은 태초의 아라별이 그대로 남아있어 세파(?)와 문명의 이기를 잠시라도 잊고자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휴식처가 되어준다. 그러나 휴식도중 자칫 해이해진 마음으로 담배꽂이나 기타 쓰레기들을 아무곳이나 버려 주위의 미관을 해치고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행동을 조심하면 된다.

교문앞 정류장 진입로 왼쪽으로 들어간 음광 파수원 내에는 본교 유일의 대학촌 먹거리집이 있다. 이른바 「소림사」와 「골짜기」이라 불리워지는 이곳은 입맛을 참지 못한 아라별들이 아홉마리의 훈훈한 정에 이끌려 찾아가 몇몇 안되는 돈을 날려다 못해 「갯기」까지 하는 불상사가 종종 일어나는 아라별들의 단골집이다.

주점을 거쳐 女高까지 이어지는 통화축의 길은 산골짜기 외길은 귀가도중 문명의 혜택을 거부하는 아라별들이 자연과 접하며 사색을 즐기는 정신적 휴식터일 뿐만 아니라, 여름철이 되면 싱싱한 딸기를 축에서 열거로 살 수 있는 자연파일집이다.

아라의 봄은 빗방울로부터 시작된다. 입구에서부터 짙게 깔려지는 빗방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아라별들은 새삼 살아있음을 고마움을 느끼며 생의 의미를 찾고자 오늘도 힘찬 일보를 내딛는다.【京】

박물관

적막한 있는곳은 아니다

아의 석재유물전시장 말고도 본교에 박물관이 있다면 그대들은 의아해 할 것이다. 그러나 본교엔 박물관이 있다. 그것도 바로 그대들의 곁에 있다.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면서도 본관 3·4층 면 우측 외진곳에 위치해서 아라별들이 인식을 하지 못해 지금까지 외면을 당해 왔을 뿐이다.

‘67년 개관 이래 고고, 미술, 역사, 민속 분야에 걸쳐 제주도 특유의 유물 4천3백여 점을 소장하고 있고, 5백여점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이중 내왕담의 무신도, 물러버를 질때 등에 받치는 골배비 가족, 영주십경도, 갈매기(갈매) 등은 그대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리라.

특히, 매년 학술지표조사·발굴조사·민속조사를 통해 얻어진 유물들을 모아 2~3년을 주기로 특별전을 열고 있으나, 아무쪼록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밖에도 연구조사보고서·도록·학술지 등을 발간하고 있어, 필요하면 여러가지 학술조사나 연구자료를 얻을 수 있다. 「박물관의 전시물들은 학문적으로도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객에서도 슬기로운 조상들의 숨결을 느끼게 해주며 정신수양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박물관 관계자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바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조상들의 숨결을 느끼며 여유를 누릴수도 좋을 듯 하니 일단 기보라. 관람 요청은 1층 사무실에서 된다. 뜻밖인 실내 화기가 그대들의 생애 활력을 줄 것이다.【舊】

중앙도서관

지성인의 영원한 고향

장서 15만권을 소장한 도내 유수의 도서관인 본교 중앙도서관은 휴게실과 부속행정실을 갖춘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만으로 「座右石」을 놓고 영어단어를 외우는 아라별들이라는 그대들의 종래 인식을 바꿔놓기에 충분하고 독서욕을 채워주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서 교문입구에서 보면 멀고, 막막하게만 보여 차마 올라갈 엄두가 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우들이여! 자라고 고생할지 언언지는 것은 없다 했으니 도중에서 포기하지 말고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는 기본으로 1백 개의 계단을 힘차게 올라가보라! 도서관은 그대들의 향유지같은 무지에 지식의 새순을 틔게 해 줄 것이다.

본교 중앙도서관은 그대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일반열람실, 대출실, 개가시 열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는 자신의 선택과 필요에 달려 있다.

자습을 하고 싶거나, 조용히 책을 읽고 싶을 때는 일반열람실로 들어가면 된다. 그곳에서는 지난 고등학교 시절을 연상할 수 있을 것이요, 책속에 묻혀사는 그대들의 새 동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10시까지 연중무휴이며, 특히 시험기간중에는 24시간 개방되며 밤침만 미리 준비한다면 도서관에서 마음껏 하는 친구와 밤새껏 진리탐구에 몰두 할 수 있다.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나 랑스의 「자본론」을 읽고 싶으면 언제든지 도서관 2층에 자리한 대출실로 발걸음을 돌려라.

도서관에서는 지식의 보고로 들어가는 열쇠다. 그것만 있으면 읽고싶은 문학작품에서부터 구하기 힘든 전공서적까지도 빌려볼 수 있다.

온갖 편의를 제공하는 개가시 열람실에서는 책이 대출되지 않는 대신 필요한 책을 자신이 직접 골라 복사 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부담없이 돌려주기 바란다.

먼저, 리포트작성을 해야 할때나 시험에 대한 정보를 캐고 싶을때는 각종 참고자료와 사전류 및 교과과정과 관련된 교재등이 비치된 참고자료실로 찾아가라.

무료하거나 달리 할일이 없는 여가시간을 활용 하고 싶을 때는 국내발간학술지, 연구보고서, 각대학논문 및 요람들이 비치돼, 좋은 연구자료를 얻을 수 있고, 「리쿠르트」誌등의 취업정보지나 「문학사상」 「신동아」 등의 각종 교양잡지가 있는 정기간행물실로 가는 것도 좋을 듯하다.

시사문제에 관심이 많아 「TIME」등의 외국학술잡지나 국내·외 일간지, 대학신문등을 보고싶다면 외국학술잡지실로 가면된다. 탐라인의 후예인 그대들이 본도의 사회제반문제에 대해 그 해결방법이나, 본도에 관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본도에 대한 각종 문헌과 제주인들이 저술한 서적이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향토자료실로 찾아가라.

「百聞이 不如一見」이라 했다. 지금까지 저술한 내용들이 믿기지 않거든 그대들이 직접 찾아가 보라. 한겨울 찬 기운을 때워 주고 한여름 뜨거운 머리를 식혀주는 지식의 고향 도서관으로.【舊】



언어지습실

공강시간 뭘해야 하나

하루에도 몇시간씩 갖게되는 공강시간에 뭘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쓸데없이 배회하고 있을 그대들을 위해 언어지습실을 소개한다.

「한나라의 문화를 알려면 그나라의 언어를 알아야한다」는 말에서 우리는 이미 언어의 중요성을 인지해왔다. 머나나 오천대 부분의 취업시험이나 대학원등의 진학시험에 있어 외국어는 필수이다. 그런이유에서 위 늦게 3·4학년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전공과목을 뒤로하고 토플이나 Vocabulary를 공부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본다. 그만큼 외국어는 현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중의 하나인 것이다.

언어지습실 이용안내

1. 어학지습실 녹음메이프: 1인이 와서 이용할 수도 있고 아무때나도 좋다.
2. 어학지습실 비디오메이프: 5인 이상이 오면 아무때나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3. 외국 명작영화 비디오 상영: 3월 하순부터 정기적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영화감상회를 가질 예정이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외국어습을 단지 「어렵고, 귀찮다」는 것 하나만으로 소홀히 해버린다. 이런것을 보완 하기위해 본교 어학연구소에서는 외국어를 자유로이 공부할 수 있도록 사범대건물

2층에 언어지습실을 마련했다.

음향도서관이라고도 하는 언어지습실은 도서관처럼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영어를 비롯한 각종 외국어에 대해 Listening과 Reading의 특이적 훈련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든 곳이다.

이용신청서란 제출하면 특별한 절차없이 가지고는 각자의 녹음 테이프를 직접 듣거나 어학연구소내에 비치된 다중의 외국어테이프를 대여받아 들을 수 있고, 극영화·문화영화등의 비디오 테이프도 5명이상의 학생이 함께가서 신청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학생들 자신의 학습 열의가 별로 없는데 외국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연구소측의 홍보조차 미흡해 이용률이 저조했다.

인생에서 승리할 자는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한다는 것을 명심해, 그대들만들 스스로 이 지습실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최대한 활용하기 바란다.【舊】

전자계산소

2000년대를 대비하라

현대는 정보산업 사회다. 그 수단으로 컴퓨터가 이용되고 있는 만큼 컴퓨터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요즘들어 우수준속처럼 많은 사실 컴퓨터 확장이 생겨나 난립하고 있고, 국민학교 저학년 교과과정 속에도 컴퓨터 교육을 포함시키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이미 컴퓨터 시대에 살고있다고 할 수 있다.

그대들은 물론 시대적요청에 따라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지만, 금전적인 면이나 시간적 사정등으로 포기해야만 했던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들이 약간의 관심을 갖고 시간을 할애한다면 그 어떤것에 구애없이 컴퓨터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본교에 있다.

그곳은 바로 본관 3층에 위치한 전자계산소이다. 이곳에는 34대의 단말기가 보유된 터미널실과 18대의 컴퓨터가 보유된 P·C(personal computer)실등 2개의 USER'S ROOM(실습실)이 있어 언제든지 이용가능하다.

P·C실 이용은 별다른 신청없이 자신의 디스켓만 가지고 가면 프린터기와 함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나, 터미널실 이용에는 먼저 전자계산소 이용신청서 접수기간(3월 5일~30일) 안에 자신의 도장과 사진을 지참, 전자계산소내 교육부로 신청을 하여 USERNAME과 PASSWORD를 지급받아야 한다.

전자실에 가면 은종일 의자에 앉아 다양한 SOFTWARE를 자기 스스로 개발하면서 학문분야 이외에도 Meeting, 전자게임, 점성 등에도 컴퓨터를 이용함을 볼 수 있는데 그대들은 어떤가? 지금 당장 전자실에 달려가 Key board를 두드려 보고 싶지 않은가?【舊】

학문하는 자세와 리포트작성법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그들의 수확과정에 서 꼭 겪어야 하는 소용돌이인 리포트 작성에 고충을 겪는다. 리포트는 리포트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 리포트는 미숙한 학생들로 하여금 연구 방법을 습득하게 하고,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표현기교를 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간략한 가운데 풍부하고도 정확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리포트를 쓰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사유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실험 사색과 탐구는 학문의 필수조건이다. 이것은 학문은 자발적으로 탐구 사색하고 의문을 갖고 연구하지 아니하면 제자신의 것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한학기 강의 및 연구에 대한 질적 보충 내지는 확대를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의 자세로서 리포트를 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과정으로 문제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참고 문헌을 광범위하게 읽어와야 하며 또한 강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할 것이 요구된다.

학문은 일정한 원리에 입각한 객관적 지식의 체계다. 객관적인 정신은 학문의 정신이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주관적 역욕이나, 내 자의대로 판단하는 독단적 주장,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학문의 세계에서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私를 넘는 공의 존재, 주관론을 초월한 객관적 세계, 내 마음대로 통할 수 없는 공정의 영역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공정, 엄밀한 지식의 세계를 우리는 로고스라고 칭한다. 학문은 로고스의 세계다. 로고스를 사랑하고, 로고스를 존중하는 정신과 태도를 우리는 학문에서 배워야 한다.」 그러한 목적과 의도 하에 대학

초학년에서부터 리포트를 작성하는 성의와 노력을 가져야 한다.

리포트의 본래의 목적은 세미나식 강의를 위한 준비·작업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 여건에서는 세미나식 강의가 어렵기에 그 대치 수단으로서 리포트를 과제로 주는 일이 많다. 따라서 리포트를 쓰는 작업은 평소 사색하고 탐구한 것을 집약해서 총정리 해보는 특별한 기회와 기간이라는 점을 유의 하여, 강의와 자신의 연구 양자를 종합하여 하나의 자기류의 지식을 만든다는 각오로, 내용의 단순한 모방이나 반복을 피하고 자기생각을 논리화 시키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다음으로 담당 교수는 리포트를 과제로 줄 때, 앞으로 전개될 강의와는 어떻게 연관된 것인가, 그리고 학생들이 써야 할 관련 필 및 방향에 대한 제시와 아울러 거기에 필요한 국내외의 참고 문헌과 서적들을 상세히 소개해 주고, 여러 가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리포트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대한 것도 미리 주시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학생이 제출하는 리포트는 담당 교수의 심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예의는 단정하게 지켜야 한다. 지저분한 원고를 내미는 것도 좋지 못한 버릇이지만, 개중에는 (드물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복사해서 내어 놓는 몰염치한 일도 있음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며 학문에 대한 모독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양 영 웅 사학과 조교수

리포트를 쓰려면...

먼저 제주 대학교의 모든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그 동안의 각고에 의한 결실로 아라인의 한사람이 되어 같은 터전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고등학교를 마치고 새로운 캠퍼스에서 대학의 한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게 된다는 것이 다소 생소하고 한편으로 걱정이 앞서게 될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첫 발을 내딛기 때가 가장 힘들지만 그 이후는 기존의 맥이나 흐름에 참여하는 것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기존의 것에 입주하는 대신 여러번 자신의 새로운 흐름을 개척하고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학창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한편 모든 것이 새롭지만 느껴지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특히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중의 하나를 든다면 리포트(Report; 보고서)란 단어일 것입니다.

이것은 사용빈도수만큼이나 중요성도 커서 여러분의 대학 생활동안 수없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같은 리포트는 여러분의 학문 탐구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심어주는 수단일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의 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고착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반면 실제 이 리포트가 위와같이 이용되고 있는가라고 자문해 볼 경우 그 대답은 다소 회의적입니다. 그동안 학기중 제출된 수 많은 리포트들을 검토해 보면 그 내용 기술 방식이나 형식등이 천차 만별이고 심지어는 복사본까지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현실에서는 대학에서의 학문 탐구라는 관점에서 볼 경우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취를 얻을 수 없는 것은 두 말할나위 없을 것입니다. 이와같은 리포트는 실제로 논문 (Thesis) 등과 같이 그 체계가 형식화되어 그 부분 집합, 때로는 그보다 더 큰 하나의 개체로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그 중에서도 인문 사회 과학에서의 연구 조사 보고서, 자연 과학에서의 실험 보고서 및 어떤 이론에 대한 수식적인 증명을 요하는 보고서등 다양하며 또한 형식도 조

급식은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것은 리포트 작성시 공통적으로 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형식면에서는 서론, 본론 및 결론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각 부분은 다시 소위 6하 원칙 (When, Where, Who, What, Why, How)에 근거하여 기술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참고 문헌을 두어 리포트 작성시 이용된 여러 문헌이나 자료들을 명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내용면에서는 서론의 경우 그 연구 조사 보고서의 전체적, 역사적인 흐름이나 주변환경, 동기 및 방법론에 있어서의 개괄적 사항들을 제시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제외한 전체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본론에 있어서는 실제로 목측하는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그 연구 조사 과정을 기술하여야 하며 결론에 있어서는 각자 연구 조사에 대한 핵심이 되는 결과와 기존의 것 또는 같은 분야의 다른 발표 내용과 비교가 이루어 지고 다른 분야 또는 그 응용등에 미칠 영향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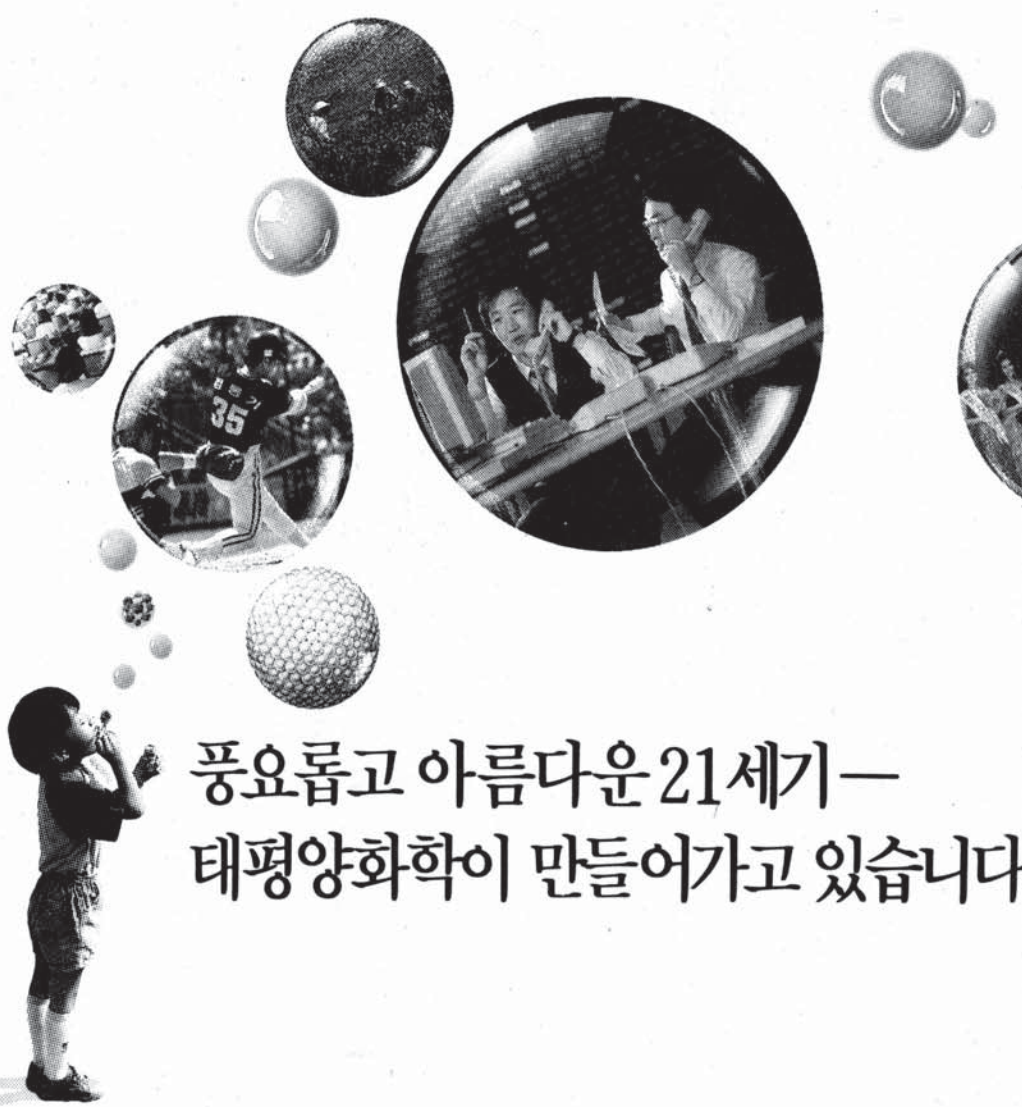
한편 이와같은 리포트에서 그 생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위에 기술된 형식위에 주입되어야 할 각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나 사상입니다. 이와같은 생명이 빠질 경우 이 리포트는 생명이 없는 하나의 하울에 불과하며 전체적인 구성은 단순한 기존 사실들의 나열에 불과하게 되어 그 의의성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을 지닌 보고서만이 각자의 정확한 의사 및 연구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상대방에게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학문적 기량을 형성하여 그 연구의 맥을 이어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은 주어진 시간들에 충실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탐구하는 습관을 평소부터 길러 새로운 시작하는 대학 학창 생활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뜻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 기 중 정보공학과 전임강사

생명공학에서도 앞서는 태평양화학



풍요롭고 아름다운 21세기—
태평양화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어떤 모습일까.
21세기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달라질까.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21세기—
21세기는 저절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창조하는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일찍이 한국여인의 아름다움을 가꾸어온 태평양화학이
지금 꿈의 21세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화장품에서 가정용품, 식품, 금융, 스포츠, 유전공학까지
여러분야에서 아름다움과 풍요를 창조해온 태평양화학—
태평양화학이 만들어가는 21세기를 주목해 주십시오.
지난 반세기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아름다움과 풍요를
창조해낸 저력과 새로운 시대에 도전하는 의지로
더 큰 아름다움, 더 큰 풍요로움을 인류와 사회에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태평양화학

신 임 학 장 인 터 뷰

학구열 고양시킬 방침



인문대학장
신행철 교수 사회학

『인문대학을 본교의 학문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수 있는 Leading College 즉, 선도하는 대학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신행철(사회·부교수) 신임 인문대 학장은 취임소감과 함께 학구열을 고양시킬 방침에 대한 포부를 간단히 피력한다.

△인문대의 중과여부에 대해.

—인문대가 포괄하고 있는 학문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므로 거기에 관련된 학과를 수용해야 한다면 앞으로 설치해야 할 학과는 많다고 본다.

△인문대에 꽤 많은 학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 공간이 좁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인문대 공간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

—공간은 모자라게 설치해야 할 학과는 많으니 적절하다. 앞으로는 외국어 교육을 위해 도서관 서북쪽에 외국어 교육관이 설립될 것이고, 미술학과와 공작활동을 위해 미술관 건립도 구상하고 있다.

△학구열 고양을 위한 학장님의 의견은.

—학구열을 고양시킨다는 건 학생 자신의 문제라 생각한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학구열을 고양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인식한 후 토론해 봤으면 좋겠다.

△학생운동에 대한 견해.

—학생운동은 어느 시대나 있었다. 그러나 요즘 학생운동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그 운동이 너무 단선적이고 흑백논리적인데, 그래서 안된다. 먼저 학생들이 운동의 성격에 대해 스스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면 좋겠다.

△사법대 졸업생도 법률인이 저조한 상태에서 인문대생들의 교직이수에 대해.

—교수수강을 해서 교사가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그 이전에 자신이 정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진리 앞에 겸손하라』, 『정의 앞에 용감하라』는 말을 하고 싶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터득하려고 애쓰라. 그러다 보면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甲】

고시반 활성화에 주력



법정대학장
서경림 교수 상 법

교수직선에 의해 만장일치로 제2대 법정대학장으로 선출된 서경림(법학·교수) 교수를 만나 대학운영계획에 대한 얘기를 나눠 보았다.

△법정대학 학과증설여부에 관해서.

—학내에 정치, 신문방송학과를 신설하려고 문교부당국에 신청안을 제출했으나 승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학과신설은 지역적 특색과 여건을 고려, 교수·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신중하게 학과를 증설해 나갈 것이다.

△법정대학의 앞으로 운영방식은.

—학생·학부모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법정대학의 전통수업을 위해 『학부모형의회』와 함께 학과와의 동문회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효율적인 고시반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금조성과 고시출제위원회를 초청해 특강을 가질 계획이다.

△현재 법정대학 교과과정상의 문제점은.

—우리가 법·행정학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이해하려고 하면 4년간으로는 부족하다. 어려가지 법제도를 이해하려면 적어도 6년이란 세월이 걸린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선 학생들이 학문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교과과정개편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법·행정학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이해하려고 하면 4년간으로는 부족하다. 어려가지 법제도를 이해하려면 적어도 6년이란 세월이 걸린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선 학생들이 학문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교과과정개편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들 단대라 달리 야간강좌부가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법정대학의 학과체계가 주·야간으로 되어 있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다. 법정대학의 교수들도 하나의 전공과목을 깊숙이 다룰 수 있고, 학생들 입장에선 주·야간이 있기 때문에 학력을 보충하기 위해 밤낮으로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지 야간학생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면 후생복지 문제와 하교길 교통문제다.

△본교 발전을 위해 우리의 학우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여러분들이 지방대학생이라고 해서 열등감을 갖지 말고 깨끗한 의지로 실력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우리대학이 어느 대학 못지않게 발전할 수 있다. 취업정보와 공부할 자료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온갖 정열을 다해 대학 4년동안 자기실력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乙】

취업대책 마련에 최선



경상대학장
부중철 교수 경제학

지난 3월 제2대 경상대학장으로 선출된 부중철(경제학과·교수)교수를 만났다.

—앞으로의 경상대 운영방침.

△대학은 진리탐구도 중요하지만 졸업 후 취업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경상대는 타단에 비해 취직이 잘되는 편이지만 아직도 어려움은 많다. 특히, 본교생들은 대부분 어학실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취업이 학생들의 문제는 아니겠으나 무엇보다도 학생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에 못지않게 교수와 학교당국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예컨대 어학실력부족문제의 경우 학생자신도 어학에 신경을 쓰고 학교당국에서도 학생들의 어학실력향상을 위하여 어학강좌를 개설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인도 일기동안 학생들의 취업문제에 최대한 힘쓸 것이다.

—경상대에 야간강좌부가 있는데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다.

△직장인을 위해 야간강좌부를 개설 한지도 10년이 넘었는데 요즘은 본래 의도와는 달리 일반학생들이 많이 진학해 야간강좌부가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만약, 정부측에서 제시한 본래 의도처럼 수험생들을 주재할 목적으로 야간강좌부를 운영할 것이라면 현 야간강좌부의 문제점을 파악, 좀더 충실히 키워나가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교수·사제간의 문제가 있다.

△지난해 교수퇴진 운동에서도 볼 수 있었던 교수자간이나 사제지간에 신뢰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의 중요문제들은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수렴해 처리해가는 것이 좋다. 또한, 대학은 목적이 있는 것이기에 교수들은 충실한 강의와 연구로써 자기직분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본다.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요즘 학생운동은 20년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자기본분을 다하면서 정치문제는 세미나나 지니한 연구를 통해 해결점을 제시해 나갔으면 한다. 그리고 목적의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갔으면 한다.

【丙】

교원적체 해소위해 노력



사범대학장
김수종 교수 영문학

신학기 학사업무 준비에 여념이 없는 김수종(영문·교수) 신임사범대학장을 찾아가 향후 사법대 운영방식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았다.

△올해부터 사법대생에 대한 특별이 없었기 때문에 종전과 달리 우수학생유지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사법대 지원자가 많이 줄어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문교부에서 국립사법대생에게 사도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전과 같이 모두에게 지급되지는 않으나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있을 것이다. 또한 1 학기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장학금 지급방식을 결정할 것이고, 이에 앞서 일선학교에 계속적인 홍보를 해나가겠다.

△앞으로의 사법대의 운영방향은?

—대학 본연의 자제 즉, 학생들이 면학에 정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현재 심각한 교원 적체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 하지만 발령대기자들도 타도에 배치받을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면 그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리라 본다.

△지난해 강요수취된 문제로 사법대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의 대책은?

—교수·학생 양쪽에서 양보하고 대화하는 자세를 보여야 했다. 앞으로 주변에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고 직접 설득하는 방법도 취해 보겠다.

△예전 사법대에서 전·폐과 조치로 말쑥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현재 사법대내의 과들은 자체내 인원이 적정수준으로 조정된 상태라서 더이상 그런 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이다.

△교복제 일각에서는 교원일용종합대책안에 대한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학장님의 견해는?

—무엇인가 개선하자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보는데 갑작스런 정책전환에 문제가 있다. 미리 홍보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앞으로 예비교사인 사법대생에게 주는 조언은?

—성실하고 전진한 학생으로서 교사가 되기 위한 마음의 자세를 갖춰 주길 바란다.

【哲】

특자의소리

유리창 난잡홍보물 개선방안 없는가

아라뱃에 우뚝 서있는 건물 현판에는 한결같이 대자보와 행사안내 홍보물들이 붙어있었다. 지정한 벽보판들이 부족(?)해 넘치는 홍보물들을 현판이나 벽에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판유리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현판문이 따로 지정된 벽보판보다 홍보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학생회관인 경우 1·2·3층의 유리창 모두 벽보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다른 각 건물들의 경우도 현판유리 벽보판 구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해야 학생들의 눈에 쉽게 띄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 벽보판의 활용이 미흡한 점이다. 이점은 현판문이 홍보효과가 좋은 탓으로, 바로 눈을 돌리면 가까운 곳에 벽보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잘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의 경우는 이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따로 벽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위와같은 현상의 주원인은 학생들의 인식부족이다. 부착하는 쪽이나 보는 쪽이나 모두 자기본위 위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다들 아니냐 현판문은 모든 사람들이 꼭 거쳐야 하는 것임을 생각해 보라. 따라서 지금까지의 타성을 버리고 깨끗하고 질서있는 벽보문화 정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양 원 철 국문교·1

경제위기 주범 과연 누구인가

파쇼권력 허구적 논리로 노동운동 탄압

작년 6월 정부의 대책발표를 전후한 대내외적 경제위기 실 유로(물론 제도언론이 광범위한 지원책이)가 더욱 맹위를 떨치며 지금까지 증폭되고 있다. 높은 임금인상이 대내적으

로는 물가인상을 부르고, 대외적으로는 수출증가를 인상시켜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수출부진에 의한 경기침체를 부른다는 것이다.

고임금—고물가—저성장—고

실업의 악순환이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안정기조를 회복하고 고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임금인상·추진수매가를 한자리수로 억제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논리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그들의 자료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여기서 몇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자.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을 가져온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에 의하면 『임금이 10% 상승해도 물가에는 영향이 없다』고 나와있으며 노동부의 통계에서도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실질임금 인상은 87년 6.9% 88년 7.2%로 각각 생산성 증가율 12.7%, 14.5%에 크게 밀리고 있다.

그러면 진짜 물가인상의 주범은 누구인가. 물론, 국제경제의 영향을 첫째로 꼽을 수 있겠지만 국내에서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는 지가상승을 들 수 있다. 국토개발원 및 노동부에 따르면 88년 땅값 상승으로 인한 자본소득은 67조 9천억원, 89년 88조 2천 7백억원에 달한다.

이해 그해 GNP의 각각 54.9%, 64%에 이른다. 전체 분당 생활자의 급여 총액보다 무려 40% 이상이나 많은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자본소득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이는 상위 5%가 60% 그리고 10%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상위 5%만 다들 아닌 독점자본인 것이다.

이렇듯 독점자본과 파쇼권력은 자신들의 끝없는 자본축적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위하구적인 이데올로기 유포를 통하여 광복적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전노협가압 노조에 대한 업무조사, 무노동·무임금 원칙 관철 민주노조 지도자에 대한 구속, 정의발생 사업장에 대한 무분별한 공권력 투입등 그들의 폭력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에 우리 민중운동 진영도 그들의 허구적인 논리와 폭력성을 광범위하게 폭로해내서 노동운동 및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을 분쇄해나가야 할 것이다.

문 용 포 회계·4

종교의 참뜻을 알아

오늘 우리가 살고있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다. 불교·기독교·회교등등. 그러나 참과 거짓을 놓고 따지자면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알 수 없다. 각기 자신이 갖고있는 종교가 참이고 진리라고 주장하니 듣는 사람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요 며칠전 어떤 아주머니의 말씀이 생각난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종교는 참과 거짓 2가지 뿐이란단.

종교를 놓고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할 수 없지만 다른 종교 또는 『파』를 이단이라하여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은 확실히 거짓종교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종교는 신성한 것이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마음이 안정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종교단체는 마치 사업을 하고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재물을 바쳐야만이 신이 잘 보살펴 줄 것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인 듯 하다.

참 종교와 거짓종교/ 이것

은 참에서 보면 거짓이요, 거짓 탄이라든지 하는 생각은 버렸에서 보면 참이라고 말할 수는 으면 한다.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적어도 다른 종교를 이단이라든지 사 이 경 자 농경제·2

濟大漫評



□ 신임생에게

종로컴퓨터학원은 대학생 여러분들을 위해 새로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리포트를 펜으로 쓰고 계십니까?

이젠 확연히 우리들 눈앞으로 다가선 컴퓨터한글문화를 올바르게 수용, 보급하기 위해 본원에서는 『워드프로세서』 반을 사무자동화(OA) 교육과정에 개설하여 대학생 여러분을 모시고자 한다.

워드프로세서란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고 내용을 입력하고보 관하면서 수시로 내용을 추가, 삭제하고 도표, 공문서식등을 입력하여 프린터로 인쇄하는 기능 및 기타 관련기능들을 모아 놓은 소프트웨어(프로그램)를 말한다.

현재 시중에는 보석글 시리즈, 워드스타, 워드퍼펙트, 한글 2000, 한글 W/P 등 수많은 워드프로세서 전용기 및 S/W들이 있으나 본원에서는 이들을 가장 많이 쓰인다고 판단되는 보석글, 티지메이트(TGEDIT), 한글 W/P 등을 선별하여 완전한 실습위주의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베이직과정, 사무자동화(OA) 과정, 기능사, 기사대비반 운영중!)

강의시간 및 실습안내

시 간	내 용
오전 09:00~11:00	실습
오후 01:00~02:00	한글 W/P, TGEDIT
오후 08:00~09:00	보석글 II

※ 오전부터 11시까지의 완전개방형 실습실에서 실습할 수 있음.
※ 한번의 수강등록으로 위의 모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음.
※ 행정전산망 W/P인 '하나'는 개인별 접수하여 개인지도함.

최선을 다하는

종로컴퓨터학원

법원앞 버스정류소 ☎ 52-9443

개강

수시접수 차량대기

3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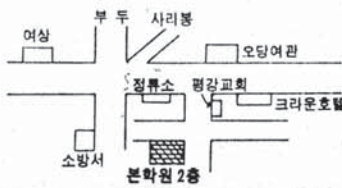
- 컴퓨터를 모르고는 현대인이라 할수 없습니다
- 미래를 생각하는분은 지금부터 컴퓨터를 배우십시오
- 저희 본학원에서는 서울중앙전산학원 수료생이 직접 강의를 하고있습니다.

◎ 교육안내 ◎

어린이 과정	BASIC 과정	정규 과정	특 강 과 정	여성부
초 급 I	중급 G/W BASIC I	EDPS 개론	MS-DOS (기초)	기초 DOS
초 급 II	중급 G/W BASIC II	FORTAN	MS-DOS (고급)	워드프로세서
중 급 I	중급 G/W BASIC III	COBOL I	LOTUS 1, 2, 3	dBASE III
중 급 II		COBOL II	dBASE III	LOTUS
고 급 I	일반 G/W BASIC I	ASSEM	C language	1, 2, 3
고 급 II	일반 G/W BASIC II	BLV	기 사 대비반	
		OJT 실무	기능사 대비반	

● SM COMPUTER 제주대리점

신성컴퓨터학원



TEL. 22-4551



- 소프트웨어개발및 판매
- COMPUTER구입 시 2개월무료수강

「民自党」일당독재분쇄 결의

지난달 20일 청년학도대회서

「반민중연합분쇄 및 민중연합전선 구축을 위한 청년학도 결의대회」가 총학생회를 비롯 동아리연합회, 여학생회, 각 단대학생회 주최로 지난달 20일 1백여명의 학우가 참가한 가운데 민주광장에서 있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총학생회장(허준호·경제 4)은 성명서를 통해 「독재자본과 괴소권력은 경제위기를 각종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통해 계속적으로 민중운동 진영을 고립시키고 자신들의 인종적 지배를 위해 반민중연합전선을 결

성,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대타격을 가해오고 있다」며 「1만 2천 제주시청청년학생과 50만 제주도민의 강고한 연대로 민자당의 일당독재 음모를 분쇄하는데 온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정진주(부학생회장·법 4) 학우는 결의문 낭독을 통해 「강철같은 노학동맹으로 민중연합전선을 구축하자」고 전제, 「전노협, 전대협, 전농련을 중심으로 한 반민중연합 분쇄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을 비롯, 「새월이 가면」 등 총 20여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제주간호보건전문대학 동아리 신세대와 연합으로 이뤄졌다.

海大 예비대학 개설

’90학년도 해대 신입생들을 위한 예비대학이 해양과학대학 학생회(회장: 김성현·어업 4) 주최로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5동 과학도서관에서 열렸다.

22일 「탄남의 날」은 「올바른 대학생활에 대하여」란 주제로 반별모임을 가졌고, 23일 「어우러짐의 날」에는 「참교육에 대하여」란 주제의 초청강연과 동아리 소개등이 있었다.

학 오리엔테이션 실시

’90학년도 신입생 대학생활 안내가 학생생활연구소(소장: 이순형·음악교육과) 주최로 지난 26일 각 과별로 실시됐다.

조교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신입생 수강신청과 설문지 작성, 「대학생활안



○지난달 20일 민주광장에서 열린 「반민중연합분쇄 투쟁 청년학도 결의대회」 모습.

한일 소농마당 개최

신입생을 위한 「제1기 한일 소농마당」이 농과대학 학생회(회장: 한동만·원예 3) 주최로 지난달 26일 4동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한일 소농마당은 제1부·2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제1부에서는 수강신청에 대한 설명을 비롯, 농과대학생간부 및 본부기구장 소개가 있었고 제2부에서는 교가 및 민중가요 보급, 마당패 사물놀이 축하공연 등이 있었다.

「本道 산업발전을... 세미나」개최

觀産研·地發研·社發研 공동으로

「제주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지난달 19일, 본교 관광산업연구소(소장: 金範國 교수·경영학과), 사회발전연구소(소장: 申幸徽 교수·사회학과) 공동주최로, 金範國총장을 비롯, 30여명의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0동강의실에서 열렸다.

고재건(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金泰保(경제학과) 「지역산업 연관분석을 중심으로 한 제주지역의 구조적 특성과 성장전략」 △公南(농업 경제학과) 교수 「제주지역 농업구조의 특성과 발전방향」 △金炯吉(경영학과) 교수 「제주도 관광산업의 개발과 농어가 소득증대의 연계에 관한 연구」

本社 동계연수 가져

제주국제유스텔서

본사에서는 지난달 2일·3일 양일간 姜志勇 주간교수 및 전기자가 참가한 가운데 서귀포시 수동 제주국제유스텔에서 동계연수

를 가졌다. 학생기자들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한해동안 본사의 전반적인 활동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상호간의 친선을 위해 열린 이번 동계연수에서는 ’90학년도 신문편집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매춘진혼제」공연

극예술연구회(회장: 윤미라·사회 2) 주최 제1회 졸업공연 「매춘진혼제」가 지난달 10일·11일 양일간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공연됐다.

극예술연구회 회원들이 4년간의 대학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무대에 올린 이번 연극은 오대영작 김기윤연출로 사회적 불합리로 인해 매춘의 길로 들어선 여인들의 인간성을 옹호하고 있다.

수를 가졌다. 학생기자들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한해동안 본사의 전반적인 활동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상호간의 친선을 위해 열린 이번 동계연수에서는 ’90학년도 신문편집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교수동정

○姜秉圭교수(농업경제학과):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린 한국 청소년문제연구소 주최 한국 4-H회관 건립기념 세미나에서 「4-H민간후원단체확대 발전방안」이란 주제는 발표. △지난 2월 9일 한국열등조합학회 ’89년도 동계 심포지움-일선협동조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의 중담토론에 참석

○李基旭교수(영문학과): ’90년 3월 1일부터 ’91년 2월말까지 교환교수로 서울대학교에서 근무.

○蘇寅堂교수(원예학과):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수원에서 열린 「조직배양학회 상임이사회」에 참석

○鄭昌朝교수(축산학과): 지난달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과 수원에서 열린 「제주마 실사표준 설정에 따른 협의회」에 참석

○金泰植 교수(경정·조교수) △49년 제주출생 △중앙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제주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성장전략-지역 산업 연관 분석을 중심으로-」

○金敬植 교수(전자공학·부교수) △50년 대구출생 △경남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상호 연결된 토폴로지 네트워크의 성능 분석」

○安勝敏 교수(경영·조교수) △56년 대구출생 △영남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체계적 위험과 회계적 위험변수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尹錫山 교수(국어교육·조교수) △46년 충남출생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소설시 연구-화자를 중심으로-」

○宋成大 교수(사회교육·조교수) △45년 제주출생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한국도서지방 주민의 지역성」

○林載允 교수(통신공학·전임강사) △57년 서울출생 △한양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순서화로의 최적 설계 자동화 기법에 관한 연구」

○金斗哲 교수(물리·전임강사) △56년 제주출생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液晶 네마틱-스매틱 A 相轉移 근처의 마티스계 상변화 현상에 관한 광학 연구」

○金成原 同門(수학교육·시간강사) △54년 제주출생 △전북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Banach 代數의 擴大에 관하여」

무관후보생 임관식 거행

양재영君 국무총리상 수상

’90학년도 학군무관 후보생 임관 및 임용식이 金範國총장을 비롯 해병대사령관, 제주방어사령관, 학군단장 등 학내의 인사와 학부모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2일 오전 10시 본교 체육관에서 거행됐다.

이날 임관식에서는 본교 학군단 해병과 12명, 해병과 59명외에도 제주교육 대학 학군단 해병과 16명이 임관 및 임용되었는데, 金 총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오늘이 있기까지 간담없는 인내로써 용맹정진해 온 여러분의 그간의 고고 어린 노고를 기린다며 격려한 뒤, 「불퇴전의 기개와 사려깊은 인간성을 결백한 증경받는 군인이 되어, 국가방위의 첩보로서 국가의 남에서 임직적으로 국토를 방어하는 한라산처럼 조국수호의 초석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수후보생에 대한 시상도 있었는데 국무총리상에는 양재영(중식)군이, 해군참모총장상에는 김창수(기관)군이, 해병대사령관상에는 홍성오(관방경영)군이, 총장상에는 고동섭(기관)군이, 제주항해지평선상에는 강준현(관방

「耽羅文化」10호 발간

「耽羅文化」제 10호가 지난달 탐라문화연구원(소장: 梁淳熙 교수·국고)에서 발간됐다.

이번호에는 김정숙 연구위원의 논문 「濟州 海女服 研究」등 총 10편의 논문이 실려있는데, 이 중에는 日人學者 高橋公明의 논문 「高得宗 研究」가 실려있다.

한편, 「高得宗」은 세종조 제주도의 역사적 인물로서, 국내학자보다 일민학자에 의해 먼저 연구됨으로 인해 학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신세대「졸업식화전」

본교 문학동아리 신세대(회장: 이재현·경영 2)에서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시·내 유정대사 전시공간에서 「졸업식화전」을 가졌다.

이번 전시회에는 「어머니의 꽃

빌려주는 학우는 자신이 행정상의 오류를 범하는 주범임을 명심하기 바라고.

○...拙作

학교당국이 학생회측과 마찰을 빚으며 만들어진 파벌 오리엔테이션이 선보이는 날.

아라주 둘러보니, 「대학생활안내」책 지배부와 수강신청을 비롯한 몇개의 서류작성, 화장인사 만으로 일일 다뤘다는 표정이라 오리엔테이션의 의미를 무색케 하던데.

화장회의까지 걸친 파벌 오리엔테이션

怨望 衝天

이 요모양이나 다른 행정처리인들 오죽 하겠소이까.

○... 이래도 되는건지

「전도서편의 휴게실화」를 피하는 학형들이 출현, 「미꾸라지가 온 물을 흐려놓는다」라는 예말 실감케 해.

도서관이 가라오케도 아닐텐데 낮부터 아이들이 열람실 옆에서 목청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열람실 입구에서 콘소리로 누군가를 부르는등 高聲叫號를

일삼아 면학분위기 파괴죄로 고소해야 할 판.

○...錦上添花

본교 버스정류소에 사고예방을 위해 사면트박을 설치한 후 뒷처리까지 제대로 안해.

시엔트박 주위 공사후 수로시설을 하지 않아, 우천시는 질척질척한바다 제멋대로 물이 흐르고 고여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들에게 불편을 준다.

오는 비는 막을 수 없고 그렇다고 모두 아스팔트 위로 나와 있을 수도 없으니 뒷처리까지 확실히 했다면 금상첨화가 될 뻔 했소이다.

○...악업도 범이다

최근 점심시간만 되면 식당앞에서 진풍경을 구경하는듯, 손자하며 깔깔거리는 학우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학군단 신입 후보생들이 점심식사를 하는데 그 나뭇의 절도를 지키느라 군대식으로 줄지어 배식하는 모습에 타학우들은 마치 진귀한 동물이라도 구경하듯 웃음과 비아냥거림으로 이들을 바라본다는 것.

대학내에 아직까지 군사문화가 존재한다는 것도 우습지만, 이들에게 비소를 보내는 그대들 모습이 더욱 우습소이다.



○...怨望 衝天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졸업생은 졸업해서 졸업앨범을 남기게.

이번 졸업앨범을 살펴보면 편집후기는 물론 심지어 주소와 이름까지도 틀린 곳이 많아, 졸업준비위원회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찌를듯.

사전에 미리 사본이라도 살펴, '비판' 앨범도 비치되어만 말은 듣지 않도록 하길 바라.

○...죄없는 주범(?)

옛말에도 친한 사이일수록 돈거래같은 것은 삼가했거.

자신의 도서대출증을 어디다 뒀는지 남의 도서대출증을 이용해 도서를 대출 받은 후 시일이 지나도 반납하지 않아 도서를 대출받고 싶은 학생은 물론, 도서대출증 주인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이들이 날로 세를 더해 가는데.

남의 도서대출증을 이용하는 학우도 문제지만, 인정에 이끌려 도서대출증을



2 방 안

선배님! 교과알아요?

선배님! 교과알아요?

선배님! 교과알아요?

선배님! 교과알아요?

선배님! 교과알아요?

선배님! 교과알아요?

선배님! 교과알아요?

선배님! 교과알아요?

선배님! 교과알아요?

선배님! 교과알아요?

선배님! 교과알아요?

선배님! 교과알아요?

선배님! 교과알아요?

선배님! 교과알아요?

선배님! 교과알아요?

선배님! 교과알아요?

선배님! 교과알아요?

선배님! 교과알아요?

선배님! 교과알아요?

선배님! 교과알아요?

선배님! 교과알아요?

선배님! 교과알아요?

선배님! 교과알아요?

선배님! 교과알아요?

선배님! 교과알아요?

선배님! 교과알아요?

선배님! 교과알아요?

선배님! 교과알아요?

선배님! 교과알아요?

선배님! 교과알아요?

선배님! 교과알아요?

선배님! 교과알아요?

선배님! 교과알아요?

선배님! 교과알아요?

